



특별인터뷰

경기섬유수출기업연합회 회장 정명호

“각 기업마다 수출시스템 갖추도록 지원”

신소재 개발지원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산 섬유제품의 61%, 품목 기준으로는 87% 가량에 대해 관세를 즉시 없애고 남성 셔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원사를 사용했다.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면서 국내 섬유업체가 부활의 꿈에 부풀어 있다.

경기도내 섬유업체와 조합들이 벌써 빠르게 대응, 수출환경 개선으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6월26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섬유수출기업연

합회(이하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창립총회와 함께 앞으로 섬유업체의 수출증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사업 애로를 개선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회는 섬유산업에 더 이상 사안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 재도약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내 섬유류 수출 규모는 지난해 18억3천965만7천달러이며 전국 수출규모 132억3천200만7천달러의 13.9%를 차지해 전년도 수출액 17억6천304만1천달러보다 7천661만6천달러나 증가해 섬유산업이 오랜 침체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 정명호(45·사진) 이사장을 경기섬유수출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은 권운만 서울중부경편조합 상무이사, 총무는 이권재 무역협회 경기지부 관리부장이 임명됐다. 고문은 이재덕 한국섬유연구소 소장, 위촉했다. 본지는 정명호 이사장으로부터 경기섬유수출기업연합회 활동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연합회 창립 배경은?
경기도내 섬유업체는 중국, 동남아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과 국내의 열악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업체의 수출증진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내 섬유업체 및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경기섬유수출기업연합회를 출범시키게 됐다.

▶연합회 창립 목적과 사업은?
연합회는 경기도내 섬유업체의 수출을 증대하고 업계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째, 섬유수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 둘째, 애로사항 파악 및 대정부 건의, 셋째,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유대감화, 넷째,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연합회 회원은 한국무역협회 섬유업종 회원사, 경기도내 섬유업을 영위하는 업체, 공장 또는 지사의 대표, 섬유류 품목별 협동조합 대표, 단 조합의 대표가 회원이 되는 경우 소속 조합원은 연합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

▶회원 관리 권역은?
경기도는 중부(안양, 과천, 의왕, 광명, 시흥), 남동(용인,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송탄), 남서(안산, 화성, 군포), 북동(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북서(고양, 양주, 파주, 연천), 동부(성남, 광주, 하남, 미금, 이천, 여주, 양평), 서부(부천, 김포) 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산업 전망은?
중국, 동남아 등지의 자가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신소재 개발이 이뤄진다면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원사, 제직, 가공, 염색, 완제품 등으로 경기도내 1천600여개 섬유업체마다 수출시스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공동개발, 정보공유, FTA공동대비, 공동판매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진우학원

보습/영어/컴퓨터/초·중등부 전문



원장 이종진

불법고액 개인과외·탈법과외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급증과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부추기고 있어 가뜰스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입법 예고된 학원법(수강료, 보충료, 화상실 등)개정으로 인해 각 학원마다 심한 이종고를 겪고 있으며 건전한 사교육의 질서확립에 차질을 주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교와 학원은 자녀들의 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의 장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우리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으로 공부하고 똑똑해지는 교육 지향). ◆즐거워져라(내신의 민족, 고입준비도 민족, 모든 학생들이 즐겨워하는 교육)를 모토로 원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사고력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원생들의 단기간 성적 향상보다는 서서히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차별화 된 교육으로 원생들의 기본지식(필거부)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교육에 활용하며 기존 학습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풀어 가는 교육보다는 응용과 창의성을 겸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원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원장은 “학원만큼은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 개인과외·탈법과외는 교습자의 학력이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관리 신체의 상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상조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비좁은 시설이용과 공개되지 않은 공간학습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난다 해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학원은 현재 초·중·고 전과목을 우수한 강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1:1 집중지도와 소수정예·개인교과 형식으로 책임지도하고 있다.

국어과목은 교과 연계 도서를 기반으로 철학·문학·역사·수리·과학·문화의 통합교과형으로 지도하며 영어과목은 영어에 흥미를 불

단기간의 성적 향상보다는 서서히 향상시키는 교육 소수정예·개인과외 형식으로 자녀들을 우등생으로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부족한 교육수요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공존해서 올바른 교육 양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추구하며 실천하고 있는 보습·영어·컴퓨터 전문학원 진우학원(포천시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정문 앞)은 연구하는 강사진, 성실하고 철저한 학습지도로 원생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

지난 1991년 대전컴퓨터학원을 시작으로 위 곳에서 6년째 인내와 노력하는 학습을 통한 교육으로 지역 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진우학원은 ◆새로워져라(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폭넓은 응용과 창의성, 사고력을 배양하는 학습추진). ◆똑똑해져라(체계적인 학습방법

여주고 외국인과 만날 때 주저 없이 말을 걸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 수학과목의 경우는 확실한 원리해를 정확한 계산, 취약부분을 집중지도하며 원생들을 우등생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중등부도 내신 및 수능 대비를 위한 기초 다지기 교육으로 소수정예·개인과외 형식으로 책임지도 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 고등 과정에 필요한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도 기초부터 전문가의 과정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지도하고 있다.

교육 문의는 T.031)535-6161, HP. 011)267-1858. 정병각 기자 jpk61@paran.com



진우학원은 ◆새로워져라(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폭넓은 응용과 창의성, 사고력을 배양하는 학습추진). ◆똑똑해져라(체계적인 학습방법으로 공부하고 똑똑해지는 교육 지향). ◆즐거워져라(내신의 민족, 고입준비도 민족, 모든 학생들이 즐겨워하는 교육)를 모토로 원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사고력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행복한보훈이야기 2

서랍 속에 준비된 40대 가장의 유서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낼까? 이 펜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없어지면 이제 당신을 볼 수 없겠지? 당신하고 지낸 그 짧은 날 동안에 왜 나는 항상 당신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만 주었는지... 당신에게 늘 잘 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나는 항상 마음과 다르게 해왔을까?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한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얼마 후면 나도 그 곳으로 가겠지?

여보, 기억나? 당신과 함께 있던 경포의 파랗게 부서지던 파도...그리고 당신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정평의 붉게 타오르던 모닥불, 그리고 봉평의 하얗게 빛나던 매달꽃... 그 아름답던 당신의 얼굴에 어느 땐가부터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는지...

여보, 자랑아... 당신 이름 불러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야.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불러보려나... 당신하고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

을 남겨 놓고 떠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 아무것도 잘 해 준 게 없는데, 앞으로도 사랑해야 할 날들이 너무도 많은데,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영원히... 그렇지만 당신한테 남겨준 것도 없고 너무도 많은 괴로움만을 남기고 가는 나를 용서해 주오. 당신은 용감하니까 잘 해 나갈거라 믿어. 우리 아이들도...

2000년 5월 22일 매일경제에 실린 내용이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트를 타고 인생을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자. 요트로 항해 할 때에는 방향키를 제대로 잡아야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요트의 방향키는 인생의 목적에 비유된다.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10여년의 노후자금은 준비해야 안심이라고 생각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조그만 조각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전한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

할 수 있다.

만일 VUL 펀드 등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면 인생 항해가 순풍에 돛을 단 셈이므로 돛은 재테크 실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리 방향키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나름대로 움직임 요트로 항해를 하고 재테크 실적이 좋아서 순풍에 돛을 단 듯 배가 나간다고 해도 꼭 배를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구멍조끼이다. 보험이 바로 구멍조끼 역할을 한다. 얇은 물에서 노는 작은 보트는 혹시 배가 뒤집어져도 큰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구멍조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규모가 큰 요트는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혹시 배가 뒤집어 졌을 때 대비하려면 구멍조끼는 물론이고 구멍보트까지 준비해야 한다.

주식투자자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듯, 우리 인생에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생각보다 빨리 발생한 죽음, 장

애와 실직, 준비되지 않은 노후 등 4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과, 생활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사후정리자금, 긴급 예비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인생에 꼭 있어야 할 필요자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자녀를 위해 투자하셨던 부모의 시간일 것이다. 생명보험은 막히지 않는다는 모르면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예측 가능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단 하나의 금융상품이다. 자녀들에게 보험은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부모”와 같다. 이것 이상의 것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미정 김호생명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해 전에 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며 신나라 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거래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신나라 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

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까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양도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새로 계속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관관리과 870-4484-4487/4502-4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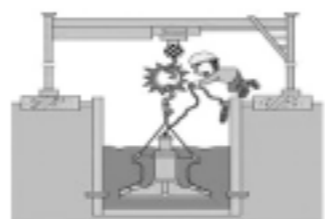
산업안전사고 예방

탈철산화조 수중교반기 인양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질식

▶재해발생 개요
○0000년 3월 31일 15시경 경기도 소재 침출수 처리장에서 탈철산화조 내 수중 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개구부 단부에서 줄걸이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캔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중 교반기를 인양하던 중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탈철산화조 내부로 추락, 질식 사망한 재해이다.

▶중증재해 예방대책
가. 개구부 방호조치 실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 (너비100c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장막(그물코 크기 10cm 이하)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안전조네스)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



계획서 작성 등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조치 실시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환기를 실시하며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 후 작업.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실(031-826-6091)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출국 때 돌려주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독일·캐나다 등 5개국 반환일시금 지급

상용성 급여 지급 국가도 많아... 일부 동남아 근로자들 반환일시금 못 받아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일부 체류자격에 따라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이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를 냈으므로 외국인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가입기간 중 한국을 떠날 때에는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며 그 중 협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국가는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등 5개국이다. 상

용성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는 가나, 말레이시아, 수단, 스리랑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홍콩, 카메룬, 콩고, 태국, 토키오, 베네수엘라, 필리핀, 스위스(97년 1월 1일 이후 상실자에 한함), 엘살바도르(98년 4월 이후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카자흐스탄(98년 1월 이후 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등이다.

그리고 최근의 법 개정(’97. 5.11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E-9 또는 H-2 체류자격)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E-8 체류자격)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포천지사 031-544-8700